

2. 도시는 어떻게 우리의 삶이 되는가

소준철 전남대학교 역사문화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우리의 일상생활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도시(都市)는 도읍(都)과 저자·시장(市)이 더해진 말이며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일정한 지역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이다. 통념적으로 도시를 시골이나 자연의 반대로도 여겨진다. 왜냐하면 도시는 많은 인간이 모여 만든 것이자, 그 인간이 역사적으로 남긴 족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수백 년간 ... 인간들의 꾸준한 노고”로 “이어온” 공간이 도시다(존 리더, 2006, 20쪽). 꾸준한 노고는 도시가 단순한 물질이 아님을 의미한다. 침실에서 건축물, 공원, 하천에 이르는 모든 공간은 대개 사회적 생산의 결과이다. 이러한 공간은 늘 수행적인 행위로 구성되며, 고도로 관습화된, 객관화된 실천이기도 하다. 로버트 E. 파크의 말대로 도시는 마음의 욕망이 깃든 대상인 셈이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도시의 이면을 감춘다. 인간의 노고는 역설적으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수탈한 시도이다. 인간은 20세기 급격한 자본화와 세계화를 이뤘고, “포드주의의 부상과 케인즈식 복지국가의 확장을 경험했고, 이런 발전은 농촌에서 도시로 향하는 대규모 이주와 공간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동반했다(닐 브레너, 2023, 84쪽).” 이제 도시는 발전의 상징적 공간이 됐고, 기능성을 중심으로 계획됐다. 게다가 20세기의 도시계획가들은 도시라는 공간을 통제함으로써 사람들과 사물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강박을 품었다. 다층적인 흐름 안에서, 도시에 사는 인간의 생활 양식(life style)이 동질화됐고, 일상생활이 공학적으로 구성됐다. 도시의 질서는 관료화되었고, 우리 인간의 노동은 단조로워졌으며 도시의 일상생활은 현대화된 동시에 규범적인 제약 안에서 작동하게 됐다(닐 브레너, 2023, 같은 글).

산책자가 되어 도시의 권리를 상상하기

그렇다고 쉽게 좌절할 필요는 없다. 발터 벤야민의 말대로 아스팔트 위에서 식물 채집을 하듯이 도시를 어슬렁거릴 필요가 있다. 우리는 꿈틀거리는 욕망과 엄격한 통제를 느끼는 산책자가 되어야 한다. 익명의 군중 속에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소비의 유혹에 굴복하기도 하지만, 탐정처럼 새로움을 끝없이 추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 태도는 도시가 통제하고 잠재워야 할 잡음으로 여겨 온 소외된 인간의 결핍과 불만에 대한 발견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들의 결핍과 불만을 박탈당하고 소외된 인간의 필요로 다시 읽고, 어떻게 그것을 충족해 나갈지 되물어야 한다(닐 브레너 외, 2023, 71쪽).

더 나아가 산책자는 무얼 해야 하는가. 이미 도래한 도시가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 도시에 관한 권리를 고민해야 한다(닐 브레너 외, 2023, 71쪽). 그는 “미래 도시의 윤곽이 그려질 수 있는 한, 그 윤곽을 통해 현재 상황의 역전을 상상함으로써, 세계의 뒤집힌 이미지를 거꾸로 그 한계까지

밀어붙여야 한다(르페브르, 2024, 242쪽).” 산책자는 미래 도시의 권리를 상상하며, “개인들의 접촉면이 사회의 바닥에 닿는 지점”을 더듬고 “매일의 삶이 사회적으로 창출된 우리에게 관한 체계적 세계”와 “교차하는 지점”을 찾아내야 한다(닐 브레너 외, 2023, 54쪽). 그래야지 우리의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의 처지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어떤 삶이 필요한지, 어떤 자원이 필요하며, 어떻게 접근할지, 대안적 삶의 방식의 이론과 실제의 간극은 어떠한지, 실험하고 실현할 가능성을 위한 권리를 상상해야 한다. 앙리 르페브르의 주장대로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 도시가 제공하는 편익을 누릴 권리, 도시 정치와 행정에 참여할 권리, 자신들이 원하는 도시를 스스로 만드는, 도시에 대한 권리”를 새롭게 끄집어내야 한다.

소비에서 벗어나기

도시에서, 국제적인 수준의 자본이 압도적인 폭력처럼 모든 걸 쓸고 지나갔다고 보기에는 이르다. 포기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도시의 정체를 밝힐 필요가 있다. 먼저, 도시는 소비가 이뤄지는 공간이라는 정의를 꺼내보자. 오늘날의 “소비사회”는 외관의 세계를 나타내지만, 더 깊은 실체를 숨긴다. 소비는 생산수단을 장악한 자, 이윤을 위해 생산하는 자에 의해 제조된다(최병두, 2018, 159쪽). 도시 역시 마찬가지다. 도시와 도시적인 모든 것의 생산 과정과 생산자의 정체는 희미하다. 그렇지만 명료하게 만들려고 했던 시도가 없던 건 아니다. 그 시작은 생산조건에 대한 관심에서부터였다.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산업혁명의 장소였던 19세기 맨체스터의 거대한 공장에서 일하는 영국 노동계급의 비참한 상태를 분석했고, 자본가의 이윤을 가능한 한 노동의 현실을 드러냈다. 이제야 자본가의 급격한 성공과 흔들리는 노동자의 삶이 대비될 수 있었다. 다음은 자본의 성장과 도시의 비대화였다. 게오르그 짐멜은 거대한 도시와 미미한 인간 사이의 관계를 주장했다. 그는 분업화와 화폐경제로 가득 찬 거대도시 안에서 사람 사이의 사회관계가 난관을 겪는다고 말했다. 이 관심은 로버트 E. 파크에게로 넘어와, 모든 인간이 공간에 반드시 적응하는 건 아님을 밝혔다. 또 제인 제이콥스와 앙리 르페브르는 포드주의적 도시 개발 프로젝트가 획일적이며 파괴적이고 반사회적인 도시가 재생산되는 것임을 드러냈다. 이제 도시가 이윤을 기반으로 도시를 생산하는 중에 다다랐다.

도시를 소비하는 도시 앞에서 사회적 삶을 상상하자는 상상 역시 맞섰다. 게오르그 짐멜은 사회나 역사, 외적 문화 및 삶의 기술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개인이 자신의 독립, 자율성과 개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려면 앞서 해야 하는 것이 있다. 자율적인 삶의 양식(life style)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외’라는 조건을 개선해야 하며, 일상어인 ‘소외감’이라는 말의 어색함을 깨쳐야 한다. 소외는, 낯섦, 소원함, 생소함 같은 주관적인 느낌·감정이라기보다 이런 느낌·감정을 만들어 내는 사회(공간)적 조건이나 과정이며(최병두, 2018, 151쪽), 상품물신주의의 결과이다. 즉, ‘소외감’은 감정이 아니라 사회적 조건이다. 더 나아가면, 소외라는 조건을 새로운 상태로 갱신할 상상이

필요하다. 여기서 사람들은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민주 사회 혹은 그저 ‘사회’ 아니면 인간적인 사회 같은 것들을 각기 다르게 주장해 왔다. 이 거대한 주장들만큼이나, 우리는 인간 역량의 완전한 발현을 허용하는 사회(누스바움, 2015)와 무엇보다 인간의 잠재력을 성취할 수 있는 태도(마르크스, 1991 참조)가 필요하다.

‘삶을 위한 도시’를 어떻게 이야기할까

사회적인 삶을 위한 도시는 소외를 넘어서는 인간의 역량과 잠재력에서 가능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상품화된 도시, 상품화되고 있는 도시 앞에 멈춰 서서 인간 생존의 조건을 돌아보아야 한다. 토지를 비롯하여 주택, 도로, 교통, 공공시설, 공공장소, 보건, 전기, 상수도과 하수도, 교통과 같은 기반 시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검토하는 일은 당연하다. 발전과 기능성이란 명분 앞에 도시의 많은 부분은 ‘공공부문’으로 이해됐고, 당연한 정치적 산물로 이해됐다. ‘대의’는 때때로 허울일 수 있다. ‘공공부문’은 실제 소수의 엘리트와 관료에 의해 기획되고 운영된다. 우리는 이 기반시설을 공공의 것으로 사회화해야 한다. 기반시설의 사회화와 함께 우리를 살게 하는 자연의 재발견이 필요하다. 인간과 사회가 자연을 덜 수탈하고, 공생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기에 인간들 곁에 선 나무와 가로수, 풀, 꽃, 벌, 새, 나비, 잠자리, 고양이 등 비인간과의 상호성을 계속하여 밝혀야 한다.

우리는 도시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넘어서 도시의 삶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만드는 삶을 위한 도시는 이래야 한다. 구조의 제약을 넘어, 자율성과 개성, 사회와 돌봄을 되찾아야 한다. (뻘한 말이지만, 다시 반복할 필요가 있다.)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일원화된 도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시각과 태도, 다양한 영역의 사람과 삶, 그 삶을 담아낼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다. 사람들의 삶이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정언 아래서, 도시의 계획과 정책에도 시민의 참여와 숙의의 과정과 같은 권리의 생산이 이어져야 한다. 허나 도시에서 만나는 문제를 모두 가능한 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은 버리면 좋겠다. 어떤 것은 원래부터 난해해서, 어떤 것은 사람이나 물질적인 문제로, 어떤 것은 강하고 굳은 관점 때문에, 어떤 것은 별다른 이유로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번거롭고 피로해지는 일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 그렇기에 지리멸렬한 과정에서 피로감을 견뎌야 한다. 그러다 보면 삶을 위한 도시는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 될 것이다.